

나만 도둑질 하나?

(행실 장애)

신출귀몰 경찰을 우롱하며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탈옥수 신 아무개씨가 검거되면서 전국이 파문에 휩싸인 일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자서전적인 일기장의 내용이 일부분 언론에 공개되면서이다. 그 내용들 중에는 자녀를 둔 부모나 학교 교사들에게 마치 훈계를 하듯 자녀 교육의 방식과 심지어는 체벌의 수위까지 상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는 자신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의 사랑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 한 점을 범죄의 시작으로 본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똑같이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층과 부유층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 지당한 말일 수 있다.

몇 년 전 에는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부르짖었던 흉악범도 있었다. 하나같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에게 그 원인(遠因)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성인인 그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모와 학교의 교육 탓, 특히 잘못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어른들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엄치없는 자기 방어이다. 도덕성과 인내심이 결여된 ‘초자아의 결손’은 일부 양육한 부모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또한 “나만 도둑질하느냐?”라며 사회 전체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것도 자신의 범죄를 희석시키려는 반사적 방어 본능일 뿐이며 동시에 물귀신 작전과도 같은 의도된 행동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활보하면서 “민나 도로보다!(다 도둑놈들이다)”라고 한 것처럼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다.

한 때 일각에서 강하게 거론되었던 탈옥수에 대한 동정론과 옹호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를 동정하고 마치 그의 심사를 이해하는 양하고 있다 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면 일반인들이 흉악범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기득권층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 상 맞지 않다.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난폭한 행위를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를 찬양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의적(義賊)? 의적일 리가 없다. 다만 미운 사람들, 즉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돈도 빼앗고 겁도 주는 그의 용감무쌍한(?) 행동이 의적인 양 느껴질 뿐이다.

각설하고, 신 아무개씨가 일찍이 소년원을 들락거렸다는 것을 보면 그에게 이미 행실 장애(Conduct disorder)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실 장애란 청소년기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법률상 ‘청소년 비행’에 해당되는 이 행동은 가정이나 가족 내에서만 국한될 수도 있고 학교나 사회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단순한 비행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다.

이 행실 장애의 원인에는 많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즉, 유전적으로 반사회적인 인격을 타고나는 것, 가정불화, 부모의 성격 장애,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것과 사회 반응으로서의 낙인론(labeling theory) 등이 있다.

그는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가정불화와 사회적 낙인론을 주로 거론한 듯하다. 원인적 요소로 따지자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인이 된 사람에 있어서 행동상의 잘못은 그 책임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일부 청소년들이 흉악범을 이상화하고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였지만 법 집행을 하는 기관들이 “그는 절대 의적이 아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목청을 돋우는 것이 더 어색했다. 범죄자는 법의 형평에 맞게 의법(依法) 처리하면 될 일이다. 검찰, 경찰이 어째서 ‘스타의 산실(産室)’이 되었는가?